



성수동 카페거리에서
코딩하던 700일의 기록

산업공학과 학사과정 **김선욱**

안녕하세요. 무사히 산업기능요원을 마치고, UNIST로 복귀한 산업공학과 학부생 김선욱입니다. 2년간 대체복무를 마치고 오니, 어느덧 화석이라고 불릴만한 나이가 되었네요. 오랜만에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먼저 대학원생이 된 친구들을 보니 기분이 싱숭생숭합니다. 모쪼록 남은 2년간 복수전공인 디자인의 coursework까지 잘 마무리하고 무사히 졸업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하.

지난 1년 11개월간, 카페거리로 유명한 서울 성수동의 AI 콘텐츠 회사에서 AI 엔지니어로 근무하였습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활성화된 UNIST 학생들에게는,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제도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지만, 목적을 들여다볼 때, 전문연구요원은 연구 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산업기능요원은 생산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능요원은 개발자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애니메이터, 공장 생산직 등 그 내부에서도 다양한 직무로 나뉘어요.

IT 직군은 연구직이 아닌 이상 서울이나 판교에 집중돼 있어요. 저도 인턴을 시작할 때 주거지를 구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처음에는 짧게 3개월만 일해볼 계획이었기에, 건대 입구 근처의 레지던스(=고시텔)에 계약했어요. 월세가 55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서울 집값



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건대 입구 - 성수 - 독섬(서울숲)은 지하철로 한 정거장씩 이어져 있어요!) 그렇게 자리 잡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서울의 첫인상은... '와, 이 거리 한 줄에 있는 가게가 UNIST 전체 가게 수보다 많다'였습니다. 그만큼 서울은 변화하고, 정신이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새로운 경험과 기회가 넘쳐납니다.

저는 만화 창작에 관심이 많은데요. 작업 과정에서의 노동집약적인 요소를 개선해 보고자 시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미지 생성 AI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콘텐츠와 AI라는 두 가지 도메인을 모두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점을 좋게 평가해 준 AI 콘텐츠 회사에서 인턴 제의가 왔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산업기능요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중 '반려동물 AI 프로필 생성기'를 개발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다양한 복장을 한 반려동물 이미지와 의인화 이미지를 생성하고 견주/묘주분께 사진을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였는데, 실제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고 AI 콘텐츠로 수익화까지 내본 경험이었기에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당시 Stable Diffusion XL 모델이 막 나온 시점이었었는데, 사람보다 반려동물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셋의 양이 훨씬 적다는 걸 발견하면서 프로젝트가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각 강아지, 고양이 사진을 학습하여 LoRA 모델을 만들고, ControlNet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한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A/B Matrix로 비교 분석을 반복하면서 하나씩 이슈를 해결해 나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things flow | KRAFTON

핑크플로우, '반려동물 AI 프로필' 서비스 출시

반려동물 사진 등록하면 24시간 내 AI 프로필 사진 제공



산업기능요원을 하면서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특별한 경험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기억 남는 건 2023년 롤드컵 기간 때 있었던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에 티켓을 구하지 못해, 티켓을 얻을 수 있는 스폰서의 여러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AWS에서 열리는 LoL 데이터 사이언스 해커톤에 참가하여 콜롬비아에서 온 엔지니어분들과 함께 코딩을 하기도 하고, 이후 친해져서 고깃집에서 같이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LoL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며 투어를 시켜주기도 하는 등 재밌는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인스타그램과 링크드인 친구를 맺고, bros와 지금까지 소통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특히 유명한 카페와 베이커리가 많은 성수동답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개발자 분들과 소통하기도, 가끔 서울에 놀러 오는 친구, 선후배님들과도 미식을 탐구하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기미사 성수나 upside coffee, Puff.out 같은 가게를 좋아했는데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 찾아가 보세요. COEX에서 열린 커피 박람회에 원두를 출품할 정도로 경쟁력 있는 가게입니다.

서울에서 일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곳이 무궁무진한 기회의 공간이라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 부담이 적어 기회를 잡기가 훨씬 편하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행사와 커피챗 기회가 몰려 있다 보니, 서울에 주거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하철을 타고 쉽게 움직이며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고, 그래서 결심을 내리는 데 시간적, 심리적 부담이 크지 않아 좋았어요.



실제로 AI Research Group이나 Startup Accelerator가 서울에 많이 모여 있었고, 그만큼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어요. AttentionX, Deepest, SNUSV, PuesdoLabs 같은 소통하기 편하면서도 질 높은 모임이 많았던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저 역시 대체복무 기간 동안 AttentionX VLM팀 소속으로 연구자분들과 교류하며, 함께 EMNLP 2025 Main Conference에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었어요. 저는 2년 계약으로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을 잡았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관리비 별도 월세 70만 원을 냈거든요. 서울 집값이 얼마나 살인적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정보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 어떤 게 진짜 기회인지,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UNIST는 외부 정보나 기회가 지역적, 거리적 제약 때문에 제한되기는 하지만,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어느 정도 필터링되고 정제된 경우가 많습니다. 덕분에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하나를 깊게 파고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결국 서울과 UNIST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직접 경험해 보시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서울 생활이나 산업체 경험을 쌓고 싶다면, 방학 중 체험형 인턴 공고를 찾아 회사에 합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1년 이하 단위로 자취방을 구하는 건 쉽지 않으니, 레지던스를 계약해 출퇴근하면서 채용 프로세스와 회사 생활을 경험해 보고, 산업계가 맞는지 학계가 맞는지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인턴이나 대체복무, 혹은 짧은 체험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 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해 드려요. 예상치 못한 인연과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총 대신 라떼, 성수에서 보낸 700일은 끝났지만, 앞으로의 시간에는 또 어떤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seonuk.kim@unist.ac.kr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울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